KBS N
magazine
VOL.26 MAY. 2018

두 남자의 특별한 법정 플레이
슈츠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KBSN PLUS

Always together, KBS N

가정의 달 5월,
KBS N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들!



KBS N magazine

VOL.26 MAY. 2018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8. 5. 1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윤재, 손영주
제작 · 디자인 DNC www.thednc.co.kr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매거진에 대한 의견이나 정기 구독, 기사 제보는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가 담긴 KBS N 매거진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세요.
www.kbsn.co.kr/magazine.do



Cover Story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슈츠〉 제작발표회 현장. 색다른 브로맨스를 선보이고 있는 주연 배우 장동건, 박형식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04
N focus
5월 황금연휴를 위한
KBS N 채널별 특별 편성 프로그램

06
N special
2018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가다!

10
Contents
180도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법정 플레이
KBS 2TV 수목드라마 〈슈츠〉

13
Program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상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참여
〈추억은 방울방울〉

14
Issue
KBS N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V-리그 선수와 팬들의 만남!
대한항공 점보스 한선수, 정지석 선수

16
Inside
KBS N 기술 네트워크의 히든카드,
유쾌하고 다재다능한 만능 해결사!
기술기획팀 최종안, 김학열 사원

18
Trend
1인 미디어 시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궁금하다!
〈KBS N 대학생 기자단 푸른나래〉 출신
유지영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터뷰

20
N news
KBS N 주최 〈숲의 요정 페어리루〉
국내 최초 가족뮤지컬로 탄생

22
Notice
KBS N 매거진 주요 배포처

5월 황금 연휴!
럭키박스 같은 스페셜 방송 종합선물세트
KBS N 채널별 특별 편성 프로그램

KBS N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속 방영한다.
드라마 몰아보기와 KBS Joy 대표 예능 〈차트를 달리는 남자〉, 〈연애의 참견〉, 아이들을 위한 극장판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특집 방송으로 스페셜한 5월을 보내보자!



KBS drama

〈우리가 만난 기적〉 1~10회 몰아보기

신선한 설정과 흠잡을 데 없는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로 매회 시청률을 경신하며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가 만난 기적〉. 회를 거듭할수록 두 명의 송현철 간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리가 만난 기적〉을 연휴 기간 KBS drama에서 만나보자.

5월 7일(월) 오후 3시

KBS Joy



영화보다 더 놀라운 기상천외한 실화가 가득!
〈차트를 달리는 남자 스페셜〉 4편 몰아보기

매주 특별한 차트로 토요일 오후를 책임지고 있는 차달남이 5월 5일 4편 연속 방송된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특별한 광고&별난가족과, 놀랄만한 반전 스펙을 가진 연예인들, 도가 넘는 집착을 보인 황당한 범죄자들, 어린이 스타까지 세상을 들썩이게 한 신박한 이야기들을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볼 수 있다.

5월 5일(토) 오전 9시 30분



〈연애의 참견〉 연속 방송

이별이 필요한 연애에 촌철살인 돌직구 조언을 던지는 〈연애의 참견〉! 프로 연애참견러 어벤져스 '김숙, 최화정, 주우재, 곽정은'의 고민 사연에 대한 폭풍 참견을 들어볼 수 있다. 사내 비밀 연애 중의 커리어 우먼의 사연,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친과 가난한 남친을 두고 갈등하는 여자친구의 이야기 등 한번 참견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연애의 참견〉을 연속 방송한다.

5월 5일(토) 오후 9시 10분



〈연애의 참견〉 '짤의 전쟁'(고민사연 토크) 편집본 방송

각종 증거를 통해 사연을 살펴보는 '짤의 전쟁'은 실제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을 보며 커플의 사연과 심정을 유추해보고 출연진들의 평소 소신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다.

5월 7일(월) 낮 12시 30분

KBSN SPORTS

온종일 스포츠 마니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출격!

5월 5일 어린이날 낮 12시부터 〈2018 전국 생활체육 大장사 씨름대회〉(5월 5일~7일)가, 이어서 오후 2시에는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넥센 VS kt 경기가 방송되며, 오후 4시부터는 2018 K리그 1 최고의 흥행 카드 서울 VS 수원의 슈퍼매치, 이어서 저녁 6시부터는 아이러브베이스볼 시즌10 어린이날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KBS W

해외로 떠난 〈슈퍼맨이 돌아왔다〉 연속 방송!

어린이날을 맞아 낯선 해외에서 적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설수대와 윌리엄의 이야기가 연속 방송된다. 이동국의 훈련 때문에 아빠 없이 태국 국제학교를 체험하게 된 설수대 남매와 윌리엄, 벤틀리 형제가 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호주 여행기를 담은 방영분이 방송될 예정이다.

5월 5일(토) 오후 1시 30분

KBS Kids

〈안녕, 전우치! 도술로봇 대결전〉

조선시대에서 500년의 시간을 넘어 2015년 서울로 오게 된 전우치와, 라이벌인 왕이 전우치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밀병기 도술로봇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5월 5일(토) 오전 10시, 5월 6일(일) 오전 8시

KBSN LIFE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애틋한 가족 이야기
〈인간극장〉

〈아버지의 유산〉, 〈엄마의 배냇저고리〉, 〈엄마〉, 〈아버지의 뜰〉편 방송

5월 7일(월)~5월 8일(화) 오후 1시 40분, 밤 9시 20분



가정의 달 특집 〈이미자 빅쇼〉(2017)

〈이미자 빅쇼〉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5월 7일 찾아온다.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한 가요계의 큰 별 이미자는 '섬마을 선생님', '황혼의 블루스' 등 수많은 노래를 히트시키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5월 7일(월) 낮 12시 10분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포켓몬스터 극장판 20주년 기념작인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는 역대 시리즈 중 최고의 영화라는 찬사 속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5월 5일(토) 오전 8시, 밤 10시 40분

스포츠와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한류 콘텐츠의 탄생

2018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가다!

지난 4월 8일 강풍이 불고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앞에는 팬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올스타 슈퍼매치에 참가하는 한국과 태국 여자배구 스타들이 이곳으로 총출동했기 때문. 배구경기와 양국 문화교류 콘서트를 함께 열어 스포츠와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낸 '2018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한다.


02


03


01

KOREA–THAILAND
SUPER MATCH 2018

두 번째 열린 한국 · 태국 여자배구 국제 친선 대항전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는 한국 프로배구 활성화와 함께 국내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해 스포츠 한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국제 친선 프로배구 대항전이다. 한국배구연맹, 한국 프로배구 주관방송사 KBS N이 공동 기획하고 태국배구협회(TVA), SMMTV가 협력해 만든 국제 스포츠 문화 이벤트이다.

지난해 6월 방콕 후아막 스타디움에서 처음 열린 올스타 슈퍼매치는 한국이 태국을 제치고 세트 스코어 3–2로 역전승한 바 있다. 한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중국 상하이에서 활약 중인 김연경 선수가 초청 선수로 합류, 한국 올스타팀 주장을 맡아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 서는 자리여서 이번 슈퍼매치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켰다. 양국 올스타팀은 4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자배구를 통해 양국의 친선을 다지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 이튿날 개최한 팬사인회는 한국 팬들은 물론 많은 태국 팬들도 참여해 여자배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01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가 열린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전경.
02 전통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은 태국 팬들의 응원.
03 쉽지 않은 승부 속에 공을 넘기고 있는 한국 올스타 양효진 선수.



01



02



03



04

경기장 안을 가득 채운 열정적인 응원과 환호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안에서는 DJ Dust가 흥을 돋우고, 응원 연습과 댄스 타임, 타카피의 오프닝 공연 등으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어 한국과 태국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하자 경기장 안은 팬들의 환호로 가득 찼다. 경기 내내 양국 팬들은 힘찬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팬들은 대형 태극기를 관람석 전체에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국 올스타팀에 힘을 보탰고, 화려한 전통의상을 차려 입은 태국 팬들 역시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다. 경기장 안의 열기는 여자배구를 매개로 한국과 태국이 하나 되는 커다란 페스티벌을 보는 듯했다.

슈퍼매치는 국제 친선 경기지만 양국 여자배구 올스타팀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다. 1세트는 엎치락뒤치락 접전 끝에 태국 올스타팀이 먼저 웃었다. 2세트는 한국이 이기며 세트 스코어 1-1을 기록했다. 3세트는 한국이, 4세트는 태국이 이기며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했다. 마지막 5세트를 태국 올스타팀이 따내며 이번 슈퍼매치의 우승은 태국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슈퍼매치에서 한국이 이긴데 이어 이번에는 태국이 이기며 한국과 태국이 번갈아 우승을 주고받았다.

태국 선수들은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었고, 한국 선수들도 날카로운 공격을 성공시키며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김연경 선수는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뛰었음에도 '배구 여제'다운 면모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시상식 후 양국 문화교류 콘서트가 진행됐다. 라임소다, CLC의 깜찍한 무대부터 태국 게스트, 오마이걸, 모모랜드의 공연에 이르기까지 경기 못지않게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며 슈퍼매치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TV와 SNS에서 화제 모으며 한류 콘텐츠로 기대감 고조

이번 슈퍼매치는 주관방송사인 KBS N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줄지어 방송되는 일요일 저녁 프라임타임에 편성되었음에도 KBS N SPORTS 채널에서 1.57%(케이블 가구기준, 닐슨코리아 제공)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태국 지상파 채널 '채널3'과 케이블 채널 'SMMTV'는 이례적으로 이번 대회를 4시간 넘게 위성 생중계했다. '채널3' 시청률은 3%를 기록했는데, 이는 약 200만 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이번 경기를 시청한 수치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서도 이번 슈퍼매치는 인기 만점이었다. KBS N 페이스북을 통해 약 8만 3,000여 명이 경기를 즐겼고, 태국 SMMTV 유튜브에서는 약 30만 명의 배구 팬들이 슈퍼매치와 콘서트를 시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배구연맹(KOVO) SNS 계정에 올라온 슈퍼매치 콘텐츠에는 약 5만 6,000여 명의 태국 팬들이 다녀가 한국 배구와 스포츠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배구 경기와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른 슈퍼매치. 제3회 슈퍼매치는 내년 봄 태국에서 다시 열릴 계획이다. 양국 스포츠 문화교류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슈퍼매치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05


06



07

01 한국 올스타팀 주장으로서 '배구 여제'의 면모를 선보인 김연경 선수. **02** 한순간도 눈을 떼기 힘들었던 열기 가득했던 경기 모습.
03 경기에 앞서 멋진 경기를 다짐하는 한국 올스타팀. **04** 공격 성공 후 밝은 표정으로 환호하는 태국 올스타팀. **05** '비밀정원'을 선보이는 오마이걸.
06 경기가 끝난 후 흥겨운 무대를 펼친 모모랜드. **07** 태국 가수 공연으로 한국과 태국 문화 교류의 장이 된 콘서트.
08 관계자 및 한국과 태국 선수들의 단체 기념 촬영.



08



진희경

강하연 역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대표 파트너



고성희

김지나 역
법무법인 강&함 법률보조 사무주임
패러리걸



박형식

고연우 역
법무법인 강&함 신입 변호사
어쏘시에잇



장동건

최강석 역
법무법인 강&함 수석 파트너 변호사
시니어 파트너



채정안

홍다함 역
법무법인 강&함
법률비서



최귀화

채근식 역
법무법인 강&함 파트너 변호사
주니어 파트너

180도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법정 플레이
KBS 2TV 수목드라마 〈슈츠〉

SUITS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장동건,
박형식 투톱 배우만으로 방영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슈츠〉.
지난 4월 23일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슈츠〉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첫 선을 보이는 현장을
담기 위해 그야말로 취재진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다.
색다른 감각의 스타일리시 로펌 오피스물 〈슈츠〉의
제작발표회 현장에 KBS N 매거진도 함께했다.

드라마 〈슈츠〉로 복귀한 투탑 배우의 즐거운 등장!

리메이크가 확정된 시점부터 초미의 관심이 쏠린 KBS 2TV 드라마 〈슈츠〉가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 NBC 인기 법정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 '슈츠'는 전 세계 최초 리메이크작이라는 수식어 외에도 장동건, 박형식 두 배우가 선택한 작품으로 제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제작발표회에는 장동건, 박형식, 진희경, 채정안, 고성희, 최귀화까지 6명의 등장 배우들이 화려하고 우아한 패션을 선보이며 차례차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전설의 변호사 역(최강석)을 맡은 배우 장동건은 클래식한 슈츠로, 변호사 면허 대신 천재적 기억력을 탑재한 가짜 변호사 고연우 역을 맡은 박형식은 캐주얼한 정장 스타일로 각자의 역할에 걸맞은 슈트를 입고 나와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배우들이 포즈를 취할 때마다 플래시 세례가 끝나지 않았고, 질의응답도 몇 차례씩 오가는 등 제작발표회 내내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서 부족함 없는 큰 반응이 오고갔다.

6년 만에 드라마 슈츠로 돌아온 배우 장동건은 "전작들과 달리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드라마라 흔쾌히 결정하게 됐다"며 "상대역인 박형식 씨와도 세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격 없이 촬영하고 있다"고 슈츠를 선택한 이유와 촬영 소감에 대해 전했다. 박형식 또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막대한 대본량 때문에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장동건 선배님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고, 대화가 잘 통해 현장에서도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얘기하며 현장에서 웃음을 선사했다.





새로운 스타일의 막강한 법정 드라마 〈슈츠〉 기대감 고조!

원작의 하비 스펙터를 각색한 캐릭터인 최강석(장동건 분)은, 언제나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는 냉철한 검사 출신으로 로펌 강&함의 에이스가 된 전설적인 변호사다. 언제나 강렬한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극을 이끌어간다. 최강석과 함께 호흡을 맞춰갈 투톱 상대역은 한번 읽으면 그대로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 로스를 모델로 한 고연우(박형식 분)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는 박형식은 고연우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생 캐릭터 경신에 도전한다.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두 배우뿐만 아니라, 진희경, 채정안, 고성희, 최귀화까지 각자 개성이 돋보이는 6인 6색의 연기는 드라마에 대한 몰입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무게감을 잡아주는 주·조연 배우들의 존재감, 딱 맞는 옷을 입은 듯한 캐릭터 표현에 완벽한 비주얼까지, 뻔한 법정 드라마를 벗어던진 매력적인 로펌 오피스물 〈슈츠〉. 〈추리의 여왕 시즌1〉에 이어 〈슈츠〉 연출을 맡게 된 김진우 PD는 "〈슈츠〉는 원작의 에피소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지화에 맞는 각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며 "원작을 흉내 내지 않고 우리만의 해석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다.

〈슈츠〉 KBS drama 채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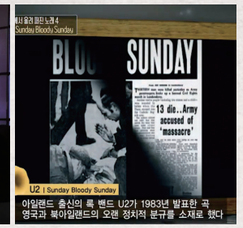
Program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상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참여

음악을 닮은 쉽고 흥미로운 선거! 〈추억은 방울방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N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이라는 소재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선거를 이야기하는 〈추억은 방울방울〉을 만나보자.





대중음악과 시대정신이 녹아든 선거를 말하다 〈추억은 방울방울〉

시대를 풍미하는 음악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녹아 있다. 대중음악과 정치의 공통점은 대중의 지지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비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는 〈추억은 방울방울〉은 팝 음악에 녹아 있는 대중의 삶,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음악 토크쇼다.

우리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팝송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추억의 7080 팝송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사랑받는가. 팝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태훈은 팝에 얽힌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풀어낸다. 델리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외 다수의 노랫말을 써온 작사가 김동영이 김태훈과 보조를 맞춘다. 두 MC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는 익숙한 음악을 좀 더 새롭게, 더욱 즐겁게 들을 수 있다.

〈추억은 방울방울〉은 매주 한 가지씩,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테마를 다룬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대를 읽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여다본다. 피트 시거가 부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게 된 노래 'We shall overcome'은 '우리 승리하리라'로 번안되어 우리 집회 현장에서도 수없이 불렸다.

〈추억은 방울방울〉은 시대의 아이콘, 시간이 흘러 재조명된 노래,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 선거의 역사 속 팝의 역할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시대와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음악들을 함께 듣는 코너를 통해 시청자는 자신의 플레이 리스트를 좀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귀가 즐거워지는 무대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추억은 방울방울〉은 KBS N Life 채널에서 방송된다.

〈추억은 방울방울〉 KBSN LIFE 채널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방송




01

덕심 폭발! 최애 선수 만나러 가즈아~

KBS N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V-리그 선수와 팬들의 만남! 대한항공 점보스 한선수, 정지석 선수

2017-2018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우승의 주역 대한항공 점보스의 한선수, 정지석 선수와 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두 선수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박수가 나올 만큼 화기애애하고 덕심 가득했던 토크 콘서트는 KBS N 아나운서들이 배구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롯이 팬들을 위해 공들여 마련한 자리였다.


02


03


04

하나부터 열까지 KBS N 아나운서들이 직접 준비한 토크 콘서트!

비바람이 치는 짓궂은 날이었지만 상암동 KBS N A스튜디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출연하는 한선수, 정지석 선수를 만나기 위해 당첨된 스무 명의 팬들이 속속들이 모였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KBS N 아나운서들이 평소 좋아하는 배구 선수를 가까이에서 보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오직 배구 팬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날 선수들을 보기 위해 제주도에서 당일치기로 서울에 올라온 팬부터, 배구 꿈나무 아들과 그 꿈을 응원해주는 아버지, 평소 배구장을 즐겨 찾았던 연인과 오랜 시간 배구를 사랑했던 팬들까지 다양한 배구 팬들이 이곳을 찾았다.

KBS N 김기웅 아나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로 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선수와 팬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의 취지를 밝혔다.

배구 성덕들, 배구 덕심이란 것이 폭발한다!

두 선수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토크 콘서트는 우승 스토리, 내 질문을 부탁해, 팬들과 함께하는 빙고게임 등으로 이어지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팬들의 궁금증들을 해소해주는 '내 질문을 부탁해' 코너에서는 선수들의 찍먹, 부먹 취향에서부터 즐겨 부르는 노래와 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 등 평소 궁금해 하던 부분들에 대해 꾸밈없이 솔직한 선수들의 대답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의 백미는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코너. 선수들이 제비뽑기로 팬들을 추첨해 사인 유니폼, 나만을 위한 영상 찍기 등의 게임을 통해 팬들에게 설레는 시간을 선물했다. 마지막은 선수 VS 지석 편으로 나눠 진행한 빙고게임. 스피드 퀴즈, 절대음감, 노래 이어 부르기, 텔레파시 등 여러 게임이 진행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선수들과 팬들은 한층 더 가까워짐을 느꼈다. 빙고게임에서 활약한 이선수 군의 아버지 이재희 씨는 "한선수를 좋아해 아들 이름도 '선수'라고 지을 만큼 배구를 좋아해 아들과 같이 신청하게 되었다"며 "뜻깊고 재밌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팬들에게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선수들은 궂은 날씨를 뚫고 돌아갈 팬들을 걱정하며, 끝까지 한 명 한 명 정성껏 사인과 사진도 마다하지 않고 임해주었다.

KBS N 아나운서들이 준비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시즌이 끝난 후 쌓인 배구에 대한 갈증을 모두 해소한 팬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팀이 준비한 사인 배구볼을 선물 받으며 훈훈했던 토크 콘서트가 마무리 되었다.

01 화기애애했던 토크 콘서트 후 다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
02 대한항공 점보스의 한선수가 팬들과 함께 단어맞추기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다.
03 정지석 선수가 신중하게 팬들의 소원 들어주기 뽑기를 하고 있는 모습.
04 팬의 요청으로 가시나 춤을 선보이는 정지석 선수.
05 배구 꿈나무인 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가진 팬.
06 토크 콘서트가 끝난 후 한 명 한 명씩 기념 촬영을 해준 한선수 선수.
07 같은 편인 팬과 함께 빙고 게임 중인 정지석 선수.

> 선수와 팬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5


06


07

밝고 유쾌했다. 그리고 치열했다. 인터뷰 내내 누구보다 남다른 존재감으로 긍정 에너지를 내뿜으며 '기술기획'이라는 딱딱한 단어와는 다르게 반전 모습을 보여준 기술기획팀의 최종안, 김학열 사원.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KBS N에서 그동안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낸 두 남자는 KBS N 방송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에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있었다.

KBS N 기술 네트워크의 히든카드, 유쾌하고 다재다능한 만능 해결사!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해결사 역할!

"저희는 평상시에 있는지 없는 지 티가 나지 않는 부서여야 해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사람들이 으레 방송국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직종은 아니지만, 방송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팀이 바로 기술기획팀이다. 기술기획팀은 파일기반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구축, 기술기획 파트, 주조정실 관리, 기술행정 등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다.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당장 티가 나는 부서는 아니지만 기술기획팀은 방송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설계하며 회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매우 중요한 팀이다.

"시스템 관리자로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해결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는 두 사원은 "다른 부서분들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고, 질문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오픈마인드를 보여주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다른 부서와의 소통의 기회로 삼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편해졌다'라는 소소한 말 뒤에 자리한 숨은 노력과 자부심

두 명의 사원은 기술기획팀 소속이라는 접점 외에도, 모두 새로 생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종안 사원은 기술기획팀에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로 설정, 트래픽 조정, 방향 설정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본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쉽게 얘기하자면 네트워크의 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최 사원은 "지난번 랜섬웨어 문제 해결은 철저한 시스템 관리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에는 전체적인 사내 인프라 환경개선 구축에 힘을 쏟는 2018년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14년 10월 KBS N에 입사한 김학열 사원은 오디오 엔지니어 업무를 담당하다가 파일 기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파일 기반 시스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방송 콘텐츠 관리, 파일 아카이브 시스템 등 전반적인 편집부분 시스템을 관리하고, 에러가 생겼을 경우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에 처음 구축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던 제로베이스 상태여서 6개월 동안은 주말, 휴일 없이 계속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안 된다고 연락받으면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수정해야 했어요. 너나할 것 없이 기술팀 모두가 붙어 함께한 작업이라 그런지 기억에도 많이 남고, 보람이 컸던 일이었습니다."

김 사원은 앞으로 파일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최 사원은 입사 후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자농구 아카이브 시스템을 좀 더 확장시켜 관계자 외 일반 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창하진 않지만 작업이 편해졌다, 빨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만 기술기획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방송기술인들. "나무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기술기획팀의 두 사원을 보며 다시 한 번 되뇌어 본 시간이었다.



기술기획팀 김학열 사원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국 입사를 꿈꿨다. 미디어공학을 전공하며 입사 시험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온 케이스로, 2014년 10월 입사했다. 파일기반 시스템 구축, 무주세계태권도 대회 전 경기 유튜브 스트리밍, OTT 채널 송출 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했다. 국장님, 팀장님, 선후배님과 함께 업무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이 즐겁다.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라면 더 이상 야구 중계를 편하게만(?) 즐길 수 없어진 3년차 방송인이 되었다는 것.



기술기획팀 최종안 사원

주요 방송국 NPS 구축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2016년 6월 KBS N에 입사하여 WKBL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및 사내 보안교육, 네트워크 고도화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현재는 게시글이 없지만 헤비 업로더와 KBS N 아나운서님들과의 식사,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다. 언제나 친추 환영!(인스타@yaimmar)

1인 미디어 시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궁금하다!

〈KBS N 대학생 기자단 푸른나래〉 출신 유지영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터뷰

〈KBS N 대학생 기자단 푸른나래〉는?
방송에 관심 있는 적극적인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KBS N의 다양한 이슈 취재와 2030 공감 콘텐츠들을 만들었다.



우주쏘녀, 그녀가 궁금하다!
촬영과 편집에 자신 있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글로벌 창의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하며 영상 제작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블로거로 시작해 구독자 6만 여 명의 유튜브 〈spacegirl 우주쏘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우주쏘녀 방 꾸미기 대작전〉 콘텐츠 조회수 53만 회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V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이다.

어디선가 한번쯤은 대도서관, 캐리, 밴쯔, 씬님 등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바로 연예인 저리가라하는 인기를 누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다. 지상파 유명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이자 이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인 MCN(멀티채널네크워크) 업계도 생겨나며 바야흐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라 불리고 있다. 거대 미디어의 자리를 밀어내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세계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 우주쏘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KBS N 대학생 기자단 푸른나래〉 출신 유지영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만났다. 그녀가 얘기하는 솔직 담백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소개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담당하는 1인 미디어를 지칭합니다.

이름이 재미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유튜브 시작 전에 했었던 블로그 닉네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주쏘녀'는 '우주를 쏘다니는 여자'의 줄임말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본격적인 활동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PD의 꿈이 있어 영상학부를 전공했는데,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우연히 여행 가서 찍은 영상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창의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입상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대회에서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며 영상 제작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정도로 생각하고 취미처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학 중 KBS N 대학생 기자단 푸른나래에 지원해서 활동했는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도움이 되었는지?
2015년 대학생 기자단 1기로 뽑혀 약 6개월간 기자단에서 기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개인 혹인 팀별로 과제를 완성했는데, 취재부터 편집, 디자인까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맛'을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52만 회를 기록한 콘텐츠가 있다. 인기 비결은?
유튜브 인기는 흔히 계단형으로 구독자나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구독자가 확 늘어났던 시점 중 한 번이 바로 〈우주쏘녀 방 꾸미기 대작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콘텐츠여서 나름 준비도 많이 했었고, 댓글도 실시간으로 보며 같이 소통하면서 만든 콘텐츠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구독자들의 댓글에 진리가 숨어있다는 것(웃음). 그리고 항상 솔직할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나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중독된 사람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영상을 찾아보고, 책도 읽고, 무엇이든지 흡수하는 자세로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중에도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하나 24시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 즐거워만 보일 수 있는 직업처럼 보이지만, 직장인처럼 출근이 없는 대신 퇴근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의 장단점, 양면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진득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인내와 참을성, 악바리 근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팁을 알려준다면?
제 주변에도 '나도 하고 싶은데'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고 싶다면 우선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MCN 등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찾아 이론 배우기. 두 번째는 장비 탓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시작하기. 세 번째는 조급함 버리기.
처음부터 구독자, 조회 수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멀리 봤을 때 구독자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한 개의 콘텐츠를 만들 때 대략 7~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편집 영상 분량은 7~8분 정도. 확실히 예전 콘텐츠와 비교해봤을 때 편집점도 빨라지고, 편집도 과감해진 것이 눈에 보여요. 직접 해봐야 노하우가 빨리 쌓이는 점은 확실합니다!

우주쏘녀 채널에서 여행, 일상, 뷰티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예전 CBS 씨리얼(C-REAL) 제작팀에서 정치, 시사를 다뤄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제작하는 콘텐츠 분야가 많아서 오히려 지금은 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10만 구독자를 만드는 것. 자유로움이 있는 대신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받고,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떨 때는 남들보다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꾸준하게 매진하겠습니다.

5월 연휴 다채로운 볼거리 풍성
KBS N 주최, 〈숲의 요정 페어리루〉 국내 최초 가족뮤지컬로 탄생

- 한일 최초 창작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 국내 첫 선보여
- 서울 양재동 더케이아트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43회 공연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숲의 요정 페어리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족 뮤지컬로 제작되었다. 지난 4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3일간 서울 양재동 더 케이아트홀에서 열리는 〈숲의 요정 페어리루〉는 KBS Kids, 디즈니채널 등 어린이채널에서 방송되며 첫 방송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어린이들 사이에 '요정' 바람을 일으킨 인기 애니메이션이다.

이미 방송을 통해 탄탄한 시청자 층을 확보한 〈숲의 요정 페어리루〉는 지난 2017년 극장판을 선보여 큰 인기를 얻는가 하면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가 주제곡을 불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렇듯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숲의 요정 페어리루〉가 감동적인 뮤지컬로 재탄생된다. 무엇보다 한일 최초 창작 뮤지컬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족 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는 신비한 요정의 나라 리틀 페어리루를 배경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뮤지컬에 그대로 반영하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숲의 요정 페어리루〉의 작품성은 물론, 환상적인 무대 효과로 요정의 신비로운 세계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구현한다. 여기에 힙합, 카니발 등 다양하면서도 높은 퀄리티의 음악과 완성도 높은 안무효과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애니메이션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KBS Kids 채널은 건전한 어린이 문화를 만들고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고자 건전한 어린이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 첫번째로 상암동 소재의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의 요정 페어리루〉 무료 공연 관람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월요일엔 톱랭킹〉, KBS N 페이스북 라이브로 즐겨요!

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팬들을 위한 웰뱅톱랭킹이 시작되었다. 〈웰뱅톱랭킹〉은 KBS N SPORTS, 스포츠투아이㈜, 웰컴저축은행이 공동 개발한 신개념 야구 평가시스템으로 같은 안타나 삼진이라도 상황 중요도가 높은 플레이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점수 체계다.
또한 승리기여도 점수가 배가 돼 팀 승리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알 수 있다. 타자별, 투수별 랭킹 차트 및 선수별 점수 현황은 웰뱅톱랭킹 홈페이지는 물론 KBS N SPORTS 2018 KBO 리그 중계와 〈아이러브베이스볼〉을 통해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웰뱅톱랭킹〉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KBS N 공식 페이스북에서 대니얼김 해설위원과 김보경 아나운서가 함께 라이브로 진행한다. 2MC의 승부 예측 배틀부터 화제가 된 직관러, 야구장 이모저모 별별 이슈들 그리고 시청자 깜짝 퀴즈와 MC 벌칙 미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책임진다.





2018 상반기 정보보안교육 실시

KBS N 2018년 상반기 정보보안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보보안교육은 사내 시스템을 고려한 보안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사내 시스템 보안 의식을 확립시키고 보다 능동적인 정보보안 관련 각종 보안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전 임직원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이 진행 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그룹웨어 장애 개요, 랜섬웨어 최신 경향, 사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방향 공유, 사내 보안준수 사항 등이다.



어린이날 특집 〈아이러브베이스볼〉 공개방송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 〈아이러브베이스볼 시즌10〉 이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매년 어린이날 공개방송을 통해 시청자 가족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아이러브베이스볼〉이 올해도 어김없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KBO리그 10개 구단 응원 가족과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방송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러브베이스볼 스튜디오를 찾은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 N의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KBS N 매거진〉 주요 배포처 안내



KBS N 본사 / KBS 미디어센터

KBS 본관 · 신관 · 별관 로비 / 인재개발원

KBS 지역총국

부산총국/ 울산국/ 창원총국/ 진주국/ 대구총국/ 안동국포항국/ 광주총국/ 목포국 순천국/ 전주총국/ 대전총국/ 청주총국/ 충주국/ 춘천총국/ 강릉국/ 원주국/ 제주총국

KBS 계열사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비즈니스/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인천국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

1터미널 동편·서편/ 인천공항 탑승동

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SO

〈CJ 헬로비전〉

양천/ 은평/ 부천/ 김포/ 북인천/ 충남/ 경남/ 가야/ 해운대기장/ 영남 신라/ 영동/ 강원/ 대구수성/ 대구동구/ 호남/ 전북/ 영서/ 아라/ 나라

〈티브로드〉

도봉/ 강북/ 노원/ 광진/ 성동/ 강서/ 동대문/ 서대문/ 종로중구/ 새롬/ 서해/ 남동/ 수원/ 기남/ 한빛/ 에이비씨/ 중부/ 전주

〈딜라이브〉

송파/ 서초/ 구로금촌/ 중앙/ 용산/ 마포/ 서서울/ 노원/ 북부/ 중랑/ 동서울/ 경기/ 우리/ 경동/ 동부/ 강남

〈CMB〉

한강/ 동서/ 대전/ 충청/ 광주/ 광주동부/ 전남/ 대구동부/ 대구수성

〈현대HCN〉

서초/ 동작/ 관악/ 충북/ 금호/ 새로넷/ 경북/ 부산

〈기타〉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씨씨에쓰 충북방송/ 아름방송/ JCN 울산중앙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KCTV 제주방송

〈IPTV 및 위성〉

KT/ SKB/ LG U+/ SKY LIFE

공공도서관

〈서울-27개소〉

강남도서관/ 대치도서관/ 개포도서관/ 청담도서관/ 역삼도서관/ 금천구림정보도서관/ 남산도서관 외

〈인천-3개소〉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경기-36개소〉

고양시립화정도서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하남시신장도서관(구 하남시립도서관) 외

〈대전-3개소〉

가수원도서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충남-9개소〉

공주도서관/ 논산강경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보령도서관/ 부여도서관 외

〈충북-5개소〉

제천시립도서관/ 청주북부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

〈대구-3개소〉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울산-1개소〉

울주도서관

〈부산-4개소〉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외

〈경남-12개소〉

거제도서관/ 의령도서관/ 진주연암도서관/ 창녕도서관/ 마산도서관/ 창원도서관진해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외

〈경북-11개소〉

경산시립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포항중앙도서관 외

〈광주-4개소〉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중앙도서관

〈전남-6개소〉

광양시립중앙도서관/ 나주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순천시립중앙도서관/ 여수시립돌산도서관

〈전북-7개소〉

군산시립도서관/ 김제시립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외

〈강원도-6개소〉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속초도서관/ 원주시립도서관/ 춘천남산도서관 외

〈제주도-1개소〉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제주도서관

대학도서관

〈서울-30개소〉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외

〈인천-3개소〉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도서관/ 인천대학교 도서관

〈경기-11개소〉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과학학술 정보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도서관/ 용인대학교 도서관 외

〈대전-9개소〉

한남대학교 도서관/ 대전대학교 도서관/ 대전보건대학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외

〈충남-6개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도서관/ 공주대학교 도서관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서관 외

〈충북-11개소〉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서원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세명대학교 도서관 외

〈대구-6개소〉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의료원 의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외

〈부산-8개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경성대학교 도서관 외

〈경상-14개소〉

울산대학교 도서관/ 인제대학교 도서관/ 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외

〈광주-5개소〉

호남대학교 도서관/ 광주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전라 - 6개소〉

목포대학교 도서관/ 우석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외

〈강원-2개소〉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한림대학교 도서관

〈제주-1개소〉

제주대학교 도서관

카페 배포

서울 신촌/이대/홍대/ 건대 대학가 지역 100개 매장 카페(스타벅스, 커피빈 외) 배포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KBS N



KBS N은 KBS Drama(드라마), KBS Joy(엔터테인먼트), KBS N SPORTS(스포츠), KBS W(여성), KBS Kids(어린이), KBS N Life(교양, 다큐), KBS N Plus(OTT)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즐겁고 유익한 세상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KBSN PLUS

광고사업, 공연/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브랜드사업, 키즈사업, 콘텐츠유통사업